

보편적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뤄야

문화재 대중 관심 끌어올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 문화재청장

우리나라 출판계의 밀리언셀러 시대를 연 책으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93년 1권이 출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210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산술적 기록은 차치하고, '기행문학의 백미'라 불리며 수없는 찬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저자인 유홍준 청장(당시 영남대 교수)은 우리 문화유산을 새롭게 창조한 인물이자 국토허물관의 길눈이로 명성을 떨쳤다. 세 권이 출간된 후 집필 휴지기 상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 청장은 3권 저자의 말 지면에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자”는 욕심을 부렸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책은 출판계의 '기행문' 출간 러시현상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토 곳곳에 자리한 문화재로 사람들로 인도했다. 이후 온라인 통신의 급부상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대중필자 시대를 맞아 수많은 형식의 기행서와 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문화서가 출간됐지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아성에 근접한 책 하나를 거론하기 힘들다.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적 윤희와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시킨 베스트셀러에서 10년을 넘어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된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만나 책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과 시대의 산물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들어봤다.



무심한 사회 인식 환기시킨 명저

“요즘 독자들에게는 책이 쓰여진 1990년대 초반 사람들이 느낀 만큼의 재미는 없을 겁니다. 당시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막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였어요. 알면서도 말 못하는 사실들이 많았던 시절인데 문화재에까지 독재정권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다뤘기 때문에 독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또 하나 아직까지 이 책이 알려지는 이유라면 책의 주제인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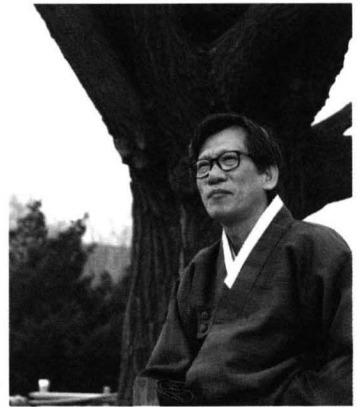
저자의 분석처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출간당시 학생, 직장인은 물론 가사생활에 충실했던 30~40대 주부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새로운 독자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독방에 투옥 중이던 노동시인 박노해 씨가 공개감상문을 통해 자신의 사상 변화에 계기가 된 책으로 언급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성과를 출판계 입장에서 보면 소위 출판용으로 인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소재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4년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스테디셀러로 평가받는다.



유홍준(俞弘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사과정, 성균관대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예술철학 전공) 졸업, 영남대 조형대학 및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교수 및 영남대 박물관장,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대표, 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저서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2,3》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화인열전》 《완당평전》 등이 있다. 간행물윤리회 출판자작상, 제17회 민해문학상 수상. 2004~현재 제 3대 문화재청장.

문화재를 새로운 글감으로 만들었다는 단순한 성과 외에도 책 한 권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식과 문명의 급속한 진보가 이루어진 현재 왜 이를 능가하는 책과 저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진지한 각성과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홍준 청장은 이를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는다.

“인간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하게 한국 출판계가 약한 부분이 바이오그래피예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역사인물 전기 없어요. ‘전기’는 정말 중요한 형식입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비쳐볼 수 있기 때문이죠.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적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유산, 사회와 자연과학의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 안에서 낯설지 않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속속들이 풀어주는 것, 즉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을 하나의 줄거리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것이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홍준 청장의 독서 인생에 영향을 끼친 책을 보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온다. 학자시절의 유청장을 미술사로 몰입하게 만든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나 야코프 브루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은 철학, 인문적 사색을 동반하는 깊이 있는 해설이 돋보이는 저작들이다. 유청장은 이 책들을 통해 편년사로 치우쳤던 국내 미술사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사와 문화사, 양식사 등 다양한 방식의 미술사 연구를 시도했다. 덕분에 우리는 한국 대표 화가 8인의 인생궤적을 좇은 《화인열전》과 추사 김정희의 일대기를 그린 《완당평전》 등 그의 책 속에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을 만날 수 있다.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 사용해야

“글이라는 것이 짧게 쓰는 것이 제일 어렵고 쉽게 쓰는 건 더 어렵고 짧고 쉽게 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

다. 쉽게 쓴다는 것은 수준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문학, 역

사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펴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류의 책이 나오지 않아 독자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야 인문학이 대접도 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겁니다.”

유청장이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는 박상진 교수 《궁궐의 우리나라》를 꼽았다. ‘나의 우리나라 답사기’라 불릴 만큼 궁궐에 심겨진 나무지도를 통해 인문, 역사, 문학 요소를 넣어서 쓴 책이라고 호평했다.

“우리나라는 전문서와 대중서를 나누어 생각하는 풍조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곰브리치가 쓴 《세계사 이야기》나 《서양미술사》가 전문서입니까 일반교양서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폐쇄적으로 된 이유는 고고한 고등세계가 따로 있고 대중이 즐기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류해놓고 전문적인 저술과 대중적인 저술을 따로 분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학자에서 공직자로 변모 한 이후에도 유홍준 청장은 문화유산의 대중 관심 유도와 저술활동에 열정을 놓지 않았다. 얼마 전 문화재청은 모 통신기업과 협력해 국보와 보물, 천연기념물의 문화재 찾기 기능을 지원하고 ‘유홍준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답사’ 등 161건의 테마별 문화재 탐방 코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에 나섰다. 유홍준 청장은 임기가 끝나는 대로 충청북도와 제주도 지방, 서울 경기 등 이전 권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싶다는 속내를 전했다. ■